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경제 살찌운다

2017년 말 준공 이후 16개 기업 입주 공장 풀가동 7개사 추가 완공엔 신규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효과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준공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6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유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순수분과 BTC 등 16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와 인구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식품(주) 등 7개 기업이 공장 가동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왕궁면 일

원에 약232만㎡ 규모로 조성된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이 산단에는 15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개발 시설, 물류단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0%의 분양률을 목표로 투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풀무원식품 등 9개의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총 57개(외투자지역 1개 포함)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체결 기업 중 23개 기업이 2016년 하반기부터 공장 설립공사를 시작해 16개 기업이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또 풀무원식품 등 7개 기업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기업들은 익산지역에서 재배된 고구마와 쌀, 잡곡, 배추 등 우수한 원료 농산물을 중계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 비축공급센터가 준공되면 익산의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마케팅으로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률 36%로 최근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과 석문국가산업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와 빛그린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6개 산단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식품시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세계 식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표식품과 대상, 롯데제과 등 중견기업 이상의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발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신규 운영

내달 8일~12월 21일...골목상권 활성화·문화강좌도

군산시는 일대에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네문화카페는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자립형 평생학습을 실천하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강좌를 즐길 수 있다.

사업은 10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시민 5명 이상이나 강사가 희망강좌와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8일까지 군산시 평생학습관 또는 시청 인재양성과(063-454-2602)에서 전화순으로 받는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이 없는 동네문화카페를 통해 평생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효과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 입법 예고

농가소득 안정 나서

익산시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 나선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입농산물 증가 등에 의한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나서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게 된다. 또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조례에 따라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고추, 양파, 생강, 마늘, 노지수박, 호박, 콩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시설재배작물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경작농지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경작지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에 지원된다.

최저가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역농협 또는 익산타마무조항공동사업법인과 파종 전 재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저가격은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생산비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자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결정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주농생명연구 중소기업, 화장품·식품 할인 행사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원한 전주지역 화장품·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행사가 마련된다.

전주시와 기술원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매출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능성 제품을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추석 선물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휴먼피아코스텍(주)과 바이오브러, 우리들네식품, 꽃님이 숲 등 10여개 기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바이오뷰티제품과 식품 제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되는 제품은 천연 화장품과 마스크팩, 크림, 비누, 시래기, 김부각 등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기능성 제품인 것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들은 행사 종료 후에는 판매한 수익금 일부로 전주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이 지사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내년 1월 전주시청 등에서 '제4회 매출UP 프로젝트'를 전개할 예정으로,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홍보마케팅팀(063-711-1006)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정읍시, 관리 대책 마련

정읍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읍시는 추석을 대비해 17일부터 시내 주요 도로와 읍면동별 취약지 일제정소, 방지쓰레기 처리 등 청결활동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음식물·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유통시설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기획상품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전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과 24일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그러나 추석 당일인 24일에는 2개반 20명의 특별 기동반을 편성해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한다.

오는 25일부터는 쓰레기 수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한 민원은 주민불편 신고센터(063-539-5721)로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아침 굶지 마세요" 고창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이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하는 '아침 등굣길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창고를 찾아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누주고 있다.

고창군 무장면에 농어촌놀이터 짓는다

NGO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신축지원 공모 선정 2019년 완공

고창군은 국제구호개발 NGO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농어촌놀이터 신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의 구조와 복지 그리고 권리 실현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구호 비정부기구다.

고창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9년까지 무장면 무장리에 농어촌놀이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농어촌놀이터 건립을 위해 군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1002㎡ 규모의 농어촌놀이터를 건축한 뒤 고창군에 기부하게 된다.

이 단체는 완공 후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고창군과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부모, 아동,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적 특성과 사용자 수요를 확인하고 주민이 설계에 참여하는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아동들의 꿈과 희망,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놀이터를 만들고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종합적인 아동복지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